

건강 칼럼

어깨통증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어깨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석회성건염 등이 있다.

과거에는 퇴행성 질환의 증상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던 어깨 통증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발생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깨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 하나인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는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김현

울산 제너스병원 통증재활학과 원장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과 관절 기능 저하로 특별한 외상이 없어 자연스레 치유될 것이란 믿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만약 이런 어깨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여러 문제점을 겪을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어깨관절의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이 악화하여 운

동 기능과 근력이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야간통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피로감과 우울감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합병증이나 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어깨는 목, 팔과 이어지기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그만큼 팔과 손목 등의 주변 신체 부위에

힘이 들어가 부담이 갈 수 있다.

다만 어깨 관절은 구조가 복잡하기에 만약 구조적인 파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한다면 별다른 호전 없이 증상이 오히려 악화돼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어깨통증 및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재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약물주사 등이 있는데 진단에 따른 치료를 일정 기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수술 요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깨 질환은 재발 우려가 높은 질환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X-ray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어깨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어느 병원의 의료용품 소송

의료용품 대금 지급을 놓고 전주 어느 종합병원과 간접납품업체 사이에 수백억 원대 소송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간접납품업체에 물품을 대운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병원과 간접납품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먼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해당 종합병원은 수술이나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 병원 물품을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사들여왔다.

간접납품업체는 의료기기 대행 구매 역할을 하며,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그런데, 지난 8월 계약이 해지되자, 간접납품업체는 밀린 대금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25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소송 여파는 간접납품업체에 물품을 대운 공급업체도 불뚱이 튀고 있다. 어느 공급업체는 "채권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 주면 직접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업체들은 또 계약 당사자인 간접납품업체가 밀린 대금을 쥐야 하는데도, 병원과의 소송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공급업체는 "간접납품업체가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간접납품이 병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만큼, 업체 선정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접납품업체를 믿고 의료용품을 대는 공급업체 입장에서 안정적인 대금 정산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한 병원의 책무 역시 크기 때문이다. 공급업체들은 "병원은 슈퍼 갑이라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에 의료용품을 공급해온 업체만 170여 곳이다.

병원과 간접납품업체 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다툼 속에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홍보물 제거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거리의 러시아 홍보물을 제거하고 있다.

광장 메운 스페인 공공 의료 서비스 시위대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지지 시위가 열려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날 수만 명의 공중 보건 종사자와 그 지지자들이 1차 의료 기관에 더 많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세계 평화여성연합 줌깅 봉사활동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제77회 유엔의 날과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지난 3~6일 전국 곳곳에서 환경 지킴이 캠페인 '줍깅' 행사를 펼쳤다.

'줍깅'이란 스페인어 plocka up(줍다)과 jogging(조깅)의 합성어다. plogging(플로깅)으로 '걷거나 뛰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봉사 활동은 전국 200개 지역에서 회원 3,0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했다. 서울 전북공지부(용산·마포·성동구)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한남동 부근 한강 길에서 '줍깅'과 환경 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UN NGO 최고 등급인 포괄적 협의기관이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립서울충원원을 비롯하여 전국 147개 지역에서 회원 900여 명이 참여하여 순국선열 및 호

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환경 정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여성연합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과 '유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름다운 지구를 후대에 잘 물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뿐인 지구, 한 번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활동을 펼쳤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600여명이 참여해 한강공원, 안양천, 영종도 마시안해변, 계양산, 굴포천 등 32곳에서 활동을 했다.

한편 세계평화여성연합 전주 시지부도 지난 6일 회원 20명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진구청 주변에서 줌깅 봉사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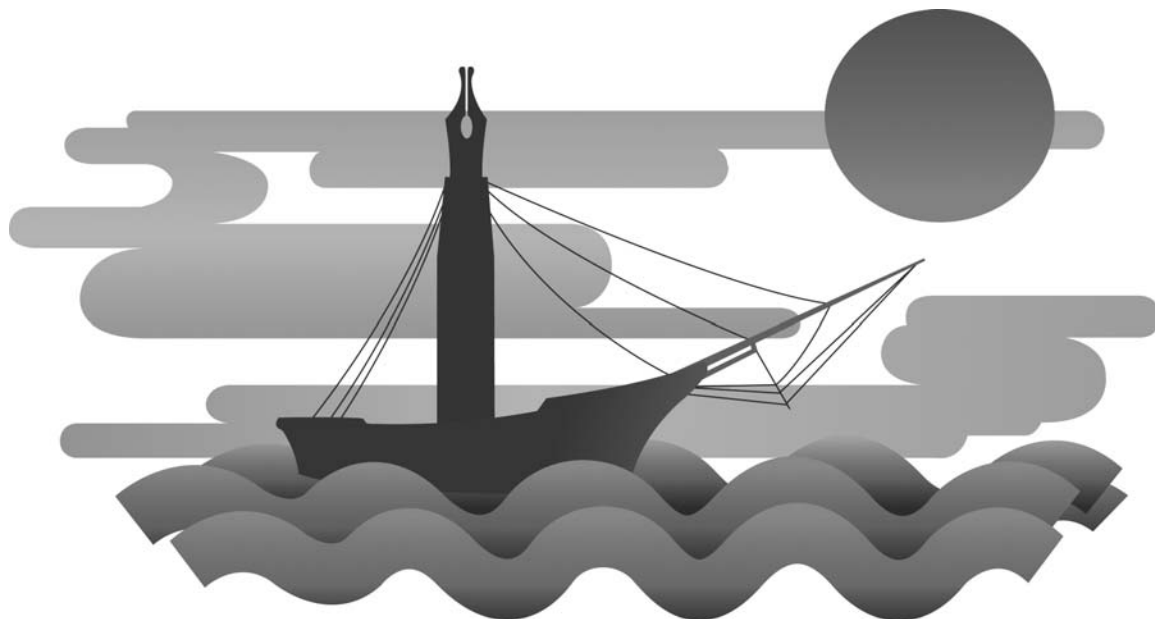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줌깅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